

CBS

2024년도 신입/경력사원 채용



CBS는 작년 연말 2024년도 신입/경력사원 선발을 마무리하고 엔지니어 2명, PD 3명, 기자 6명 등 총 16명의 신규 채용을 확정했다. 그중 본사 1명, 부산CBS 1명 등 총 2명의 신입 엔지니어는 지난 1월 수습사원으로 임명되어 방송 송출, 제작, 중계, 네트워크 관리,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신입 엔지니어들은 4월 7일까지 수습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엔지니어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MBC

지상파 뉴스채널 중 유튜브 구독자 수 첫 400만 명 돌파



MBC가 국내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뉴스채널 구독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1월 2일 기준 유튜브 'MBCNEWS' 채널의 구독자 수는 400만 명으로 이는 국내 뉴스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2위(1위: YTN, 426만 명)에 해당한다. 2018년 20만 명이었던 유튜브 'MBCNEWS' 채널 구독자 수는 2020년 100만 명, 2021년 181만 명, 2022년 29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2월 말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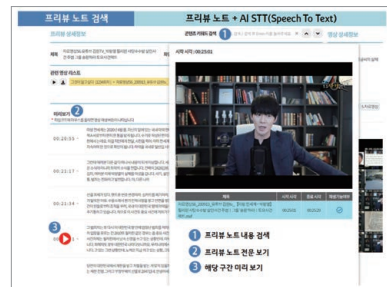
SBS

미방송 아카이브 Open

SBS는 2024년 1월 22일부터 미방송 촬영본의 전사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방송 아카이브 서비스를 Open 하였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상을 등록할 수 있으며, 영상을 검색하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영상검색 - 영상검색, 미리보기, 다운로드
2. 프리뷰 노트검색 - 프리뷰노트 +

AI STT(Speech To Tex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리말 더빙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 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의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9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BS

2024년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참가



EBS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미래 지향적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누구나 국내 최초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 '위캔버스'를 통해 학교 수업부터 자기주도 학습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고, 초등학생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한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 'AI 팽톡'의 무료 학습이 가능한 학교 교육 연계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4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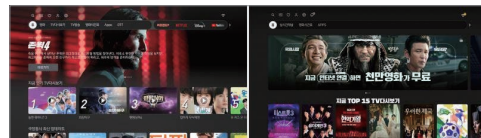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4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8-2대 경과보고와 활동 성과 보고가 발표되었고, 주요 안건으로 28-2대 결산 승인, 29-1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9대 부회장 및 감사 선임, 3건이 처리되었다. 29대 신임 집행부는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소개와 함께 2024년 연합회를 이끌어 갈 사업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고객 편의성 강화한 UX 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 고객의 콘텐츠 소비 경로 최적화를 위해 UX(사용자 경험)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탐색'하는 구조에서 개인화된 추천 정보들을 '발견'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습된 절차를 통해 고객의 선호 장르, 선호 키워드, 검색 연관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개인화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편성한다. 콘텐츠 레이아웃 구성을 늘리고 동영상 백그라운드를 재생시키는 등 감성 UX 기반의 고품질 서비스도 제공한다.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해 콘텐츠 발견 과정에 리듬감을 불어넣고 '태그형 메뉴', '가로형 섬네일' 등도 적용했다. 또한 프로모션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예고편을 백그라운드로 재생해 심미성을 높이고 고객의 정보 인지 과정을 개선했다.